

개화기 소설의 국문체와 ‘-나다’형 문장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개화 계몽 시대의 소설은 대부분이 국문체를 수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문체 또는 국한문체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1905년을 지나면서부터 신문 잡지에 연재되거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대부분의 소설은 그 문체가 국문체로 고정되고 있다. 우리 근대 소설의 성립 과정에서 국문체가 그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근대적인 문학 양식의 성립과 언어체의 상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근거가 된다. 국문체의 사회 문화적 확대가 곧바로 근대 문학의 성립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근대 문학의 첫 단계에서 당연히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개화 계몽 시대 국어 국문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문체의 발전과 그 사회적 기반의 확대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국문체는 한글의 창제 이후 성립된 조선 시대 언문체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조선 시대 이전부터 지배 계층의 이

념과 사상을 대변해 온 한문체는 그 수용 기반이 특수 계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한문체는 그들이 몸담았던 중화적 사상의 근거로서,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이념을 생산하고 그것을 대변해 왔다. 지배층과 거리가 먼 일반 서민 대중은 한문의 문자 체계를 제대로 알 수 없었으며, 거기서 비롯된 문화를 향유할 수도 없었다. 지배 계층의 문체로서의 한문체는 지배 계층만이 추구하는 지식과 사상, 지배 계층만이 누리는 문화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언어체와 사회 계층의 연결은 매우 완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글의 창제와 함께 일반 서민 대중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지자, 지배 계층에서는 오히려 한글의 언어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언문으로 격하시키고자 하였다. 한글은 지배 계층의 외면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문자 생활에서 밀려나 더 발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 언문체로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게 되었다. 언문체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사상과 이념을 번역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경서의 언해본을 출현시켰으며, 아녀자들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고정되거나, 가사나 소설과 같은 문학 양식의 문체로 남아 있게 되었을 뿐이다.

조선 시대의 언문체는 경서의 번역체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규범과 이념의 체시를 목표로 하는 일방적인 어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실제적인 가치를 규정해 주는 대화적 공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녀자들이 주고받는 편지글투 역시 언문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어조의 단일성이라는 면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조선 시대 소설 양식은 한문체와 언문체를 모두 수용하였지만, 언문체를 통하여 소설 양식 자체의 수용 계층을 대중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고전 소설의 언문체는 서사적인 요건으로서의 행위와 시간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담론 형태로서, 전체적인 어조가 서술자의 단일한 목소리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설의 등장 인물에게 각각의 성격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부여할 수 없으며, 서술자와 서술 대상 사이의 서술적 간격도 유지할 수 없다.

소설적 담론의 대화적 공간이 모두 폐쇄되어 있는 셈이다.

2.

개화 계몽 시대의 국어 국문 운동은 지배 계층에 의해 외면되었던 한글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언문이라는 명칭 대신에 자국의 문자라는 의미로 국문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한문은 더 이상 참된 글자라는 뜻의 진서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게 되었다. 국문체의 발전과 확대는 개화 계몽 운동의 사상과 이념을 대변하는 새로운 문체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문체 변혁이라는 역사적인 힘에 의해 새롭게 그 가치를 부여받은 셈이다. 국문체의 발전은 단순한 언어 문자 현상을 넘어서 조선 시대의 봉건적 사상과 이념의 쇠퇴를 말해 줌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 국문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대중을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다.

개화 계몽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상적인 언어 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문체를 통한 구체적인 표현을 요구하게 되자, 언문체의 전통 위에서 국문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국문체는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언어의 모순적이면서도 다층적인 목소리를 하나의 표현 구조로 조직화할 수 있는 문체였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된 이념과 가치는 국문체를 통해 수용된 다양한 일상적인 담론의 특성을 통해 도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문체는 규범적인 형식이나 추상적인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모든 사회적인 담화의 유형을 포괄하여 서사 양식이 추구하는 독특한 표현 구조로 조직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개화 계몽 시대의 국문체의 담론적인 특성은 당대 서사 양식의 다양한 분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전기와 허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소설, 우화, 풍자 등으

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이러한 서사 양식들은 하나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의 존재로서 그 기본 구조가 규정되며, 각각의 양식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양한 언술 형태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들은 국문체를 통해 논설, 대화, 토론, 풍자, 서사, 묘사 등의 기술 방식을 다채롭게 활용하면서 양식의 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문체는 일상적인 언어 현상에서 가능한 모든 담론의 형식을 서사 양식을 통해 구현하였고, 서사 양식을 통해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의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담론 형식의 다양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그러한 다양한 담론 형식의 분출이 서사 양식의 다채로운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개화 계몽 시대의 국문체는 복합적인 문장 구성이나 문장 길이의 장문화 경향 등 고전 소설의 문장에서 볼 수 있었던 유형적인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율문적 요소를 탈피하고 산문체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인물들의 대화를 지문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성격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사 양식에서 대화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각각의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적 공간의 의미가 그만큼 강조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담론적인 특성은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개화 계몽 시대 서사 양식의 국문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전 소설에서 주로 쓰인 ‘더라(러라)’, ‘-이라’ 등의 직설법의 종결형 문장이 새로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에는 ‘더라’, ‘-이라’ 등의 종결형 문장뿐만 아니라, ‘-나다’라는 서술 종결형 문장을 새로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내용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데에 집착했던 고대소설의 평

면적 서술성이 점차 극복되어 가는 것을 말해 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고전 소설에서 '더러' 식의 종결형은 과거 어떤 행동이 미완의 상태로 진행중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미 지난 과거의 사실 자체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종결형 문장은 서술자의 단일한 어조로 모든 담론을 통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서술의 공간 안에 배치되는 다양한 인물들이 자기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모두 서술자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게 된다. 더구나 이같은 서술 문장은 서술자와 서술 대상 간의 서술적 간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고전 소설의 문장이 묘사의 객관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러' 식의 문장은 서술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회상하여 전달하는 데에 역점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서술자 중심의 서술이라는 담론 구조의 평면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화 계몽 시대 서사 양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다'라는 종결형 문장은 그 기능이 다양하다. 이 새로운 문장의 유형은 특정한 장면의 객관적인 제시에 흔히 동원되며, 인물의 행동이나 배경의 변화에서 그 직접적인 인상을 강조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이 고대소설에서와 같은 설화적인 구도를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종결형 어미 '-나다'를 사용하는 문장은 대상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서사 공간 내에서 서술자와 서술 대상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제시한다. 이 서술적 거리로 인하여 묘사의 객관성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으며, 서사 양식에서의 실재성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기능은 서사의 원리에서 본다면, '더러'체를 통해 '말해주기'의 방식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서사 양식이 '-나다'체를 통하여 '보여주기'의 방식에 접근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나다'체는 서사적인 공간을 고정해 놓기 어려운 현재형이라는 시체의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수와 김동인을 거치면서 '-았(었)다'라는 서사적 과거 시체의 종결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았다'체의 문장은 근대 서사 양식의 서술적 문장의 기본 문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4.

개화 계몽 시대의 국문체의 특성을 근대적 서사 양식의 성립과 그 분화 과정과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으로서의 국문체의 확대를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개화 계몽 시대 자체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충동적인 사회 문화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충동적인 변화가 문체의 변혁과도 직결되고 있다는 점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특히, 문체의 변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언어층의 혼재 상태와 함께 사회 사상적인 차원의 분열과 충동이 동시에 노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개화 계몽 시대의 국문체는 시대 상황의 격변에 따른 언어 문자 사용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국어 국문 운동을 배경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단순한 언어적 현상을 넘어서서 조선 시대의 사상과 이념의 쇠퇴를 말해 줌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와 이념의 형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문체가 지니고 있는 담론적인 특성은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을 통해 확인된다. 이 시기의 서사 양식은 국한문체의 공식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문체를 수용 발전시킨 대표적인 양식이다. 그러므로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이 추구했던 독특한 표현 구조와 국문체의 연관성이 주목되는 것이다. 국문체는 서사 양식 속에서 한문체나 국한문체와 같은 규범적인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모든 사회적인 담론의 유형을 포괄함으로써 모순적 이면서도 다층적인 언어를 하나의 표현 구조로 조직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 현상에서 가능한 모든 담론의 형식을 서사 양식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서사 양식의 언어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의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담론 형식의 다양성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다

양한 언어 형식의 분출이 근대적인 서사 양식의 다채로운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의 다양한 분화는 국문체를 통해 수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언어 형식의 내적 분화를 통해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의 서사 양식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 국문체에 의하여 그 현실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근대 문학의 성립 기반이 국문체의 발전과 그 사회적 확대였음을 말해 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